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영원한 울림

E T E R N A L

R E S O N A N C E

KBS교향악단 제809회 정기연주회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 더클래스효성

2024. 12. 21.(Sat) 20:00

롯데콘서트홀

2024. 12. 24.(Tue)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 ①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 ②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 주세요.
- ③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 ④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⑤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OGRAM

베토벤 합창 환상곡 c단조, 작품80 ① 19'
L. v. Beethoven **Choral Fantasy in c minor, Op.80**

인터미션 Intermission ① 15'

베토벤 교향곡 제9번 d단조, 작품125 '합창' ① 65'
L. v. Beethoven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Choral'**

- I. Allegro ma non troppo, un poco maestoso (15')
지나치게 빠르지 않게, 얼마간 장엄하게
- II. Molto vivace (13')
매우 빠르게
- III. Adagio molto e cantabile (13')
매우 느리고 노래하듯이
- IV. Presto - Allegro assai (24')
빠르게 - 매우 빠르게

※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ietari Inkinen Conductor

지휘 피에타리 잉키넨

©Andreas Zihler



“자연스러운 음악성으로부터 나오는 매력적인 사운드”-〈그라모폰〉

피에타리 잉키넨은 KBS교향악단의 제9대 음악감독으로 2022년부터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또한 잉키넨 음악감독은 핀란드 출신으로 2017년부터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를 맡고 있다.

그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명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한 바 있다. 2023/24 시즌에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 데뷔하였고,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에서 바그너의 〈탄호이저〉 프로덕션을 이끌었다.

그는 2021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발퀴레〉를 지휘하였으며, 2023년에는 〈니벨룽의 반지〉 전막 프로덕션을 지휘한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다. 앞서 호주 멜버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전막 공연을 성황리에 지휘한 그는 이 공연으로 2014년 헬프만 어워드에서 ‘최고 지휘자 상’을, 2016년 그린 룸 어워드에서 ‘최고 오페라 지휘자 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핀란드 국립 오페라, 드레스덴 젬퍼오페,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라 모네 극장,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뮌헨 국립 극장 등에서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선보였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들과 핀란드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3부작 연주 음반을 지휘하였으며, 수석지휘자로 활동했던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도 산토리 홀에서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의 실황 녹음을 남겼다.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바그너의 지크프리트 발채곡, 프로코피예프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음반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한 피에타리 잉키넨 감독은 쾰른 음악원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자카르 브론을 사사하고, 이후 헬싱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지휘를 수학하였다.



소프라노 서선영

Soprano
Sunyoung Seo

2024년 현재 최고의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소프라노 서선영은 2011년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0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비냐스 국제 성악 콩쿠르, 그리스 아테네의 마리아 칼라스 그랑 프리 국제 콩쿠르에서도 연이어 우승을 거머쥐며 그녀의 음악적인 역량을 입증시켰다. 또한 독일 뮌헨 국제 콩쿠르인 ARD에서 2위를 거머쥐며 그 행보를 이어 나갔다.

2022년 세계적인 오페라극장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아이다> 아이다 역과 2023년 스코티시 오페라단에서 <일 트리코>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16/17시즌 도이치 오페 베를린에서 세계적인 연출가 Götz Frdrich의 마지막 작품인 <발퀴레>에 오르틀린데 역으로 데뷔하였고,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류역으로 영국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Opera North에 데뷔, 그 후 연이어 프랑스 Opéra National de Lorraine극장의 18/19시즌 푸치니 <나비부인>의 초초상 역으로 무대에 올라 그 이름을 자리매김 하였다. 스위스 바젤 국립극장의 드보르작 오페라 <루살카>의 루살카 역으로 깊이 있는 몰입과 내면의 진솔함으로 완벽하게 소화해 많은 찬사를 받은 그녀는 베르디의 <가면 무도회>, 바그너의 <로엔그린>등 다양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국내에서는 2016년 국립오페라단의 한국 초연 <루살카> 무대로 국내 정식 데뷔하여 프리마돈나의 시작을 알렸으며,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기념 오페라 <투란도트> 작품으로 관객의 깊은 신뢰를 받는 등 명실공히 최고의 소프라노로 인정받았다. 또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산투차, <라보엠> 미미, <피델리오> 피델리오,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엘레나 및 <나비부인>, <발퀴레>, <아이다> 등 다수의 오페라 주역 출연 뿐 아니라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모차르트 레퀴엠, 베토벤 교향곡 합창 협연 등 다양한 오페라와 콘서트, 그리고 오라토리오로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다. 현재 한국 예술종합학교 교수로서도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메조-소프라노 사비나 김

Mezzo-soprano
Sabina Kim

메조-소프라노 사비나 김은 부산예고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어드 예비학교를 거쳐 메네스 음대에서 학사학위 및 전문연주자 디플로마, 그리고 줄리어드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내셔널 카운실 동부지역 오디션에서 두 번의 수상을 거두었으며, 이탈리아의 마르첼로 조르다니 국제 콩쿠르 파이널리스트를 비롯하여 스피로스 아르지리스 국제 콩쿠르, 그리고 덴마크에서 열린 라우리츠 멜키오르 국제 바그너 콩쿠르에서 수상한 바 있다.

사비나 김은 브라이트 쉥의 오페라 <Dream of the Red Chamber>(홍루몽)에서 그레니 지아 역으로 2022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데뷔를 하였고, 런던 로열 앨버트 홀, 뉴저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LA 퍼시픽 심포니,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나비부인>의 스키키 역, 녹스빌 오페라와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의 암네리스 역, 엔리크 아르투로 디메케의 지휘로 보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콜롬비아 초연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브랑게네 역을 연주하였다. 이외에도 국립오페라단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게르트루드 역,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 기념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에서 알리사 역, 울산싱어즈오페라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맘마 루치아 역을 연기하였고, 벤자민 브리튼의 오페라 <나사의 회전>에서 미세스 그로스 역과 <앨버트 헤링>의 미세스 헤링 역을 맡아 줄리어드 오페라에서 공연하였다.

맥 윌버그의 <레퀴엠>과 댄 포러스트의 <유빌라테 데오>를 뉴잉글랜드 심포닉 앙상블과 함께 카네기 아이작 스톤 홀에서 공연하였고, 베르디 <레퀴엠> 솔로리스트로 미주리 심포니와 호흡을 맞췄으며, 세종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카네기 홀, 링컨센터 엘리 스 툴리 홀, 디즈니 콘서트홀, 뉴저지 버건택에서 리사이틀과 콘서트 및 오라토리오 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테너 국윤중

Tenor
Oliver Kook

테너 국윤중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후 오스트리아 빈 국립 음악 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2007 스위스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없는 2위, 2008 프랑스 마르세유 국제 오페라 콩쿠르 대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스페인 발바오 국제 음악콩쿠르 3위, 제14회 한전음악콩쿠르 성악부문 금상, 제5회 고태국 성악콩쿠르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중 한 명으로, 독특하고 따뜻한 음색과 풍부한 음악적 해석으로 알려져 있는 국윤중은 뮤지컬 올림푸스 초청을 받아 뉴욕 카네기홀에서 협연하였으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오케스트라 협연, 독일 게반트하우스 초청 협연, 일본 도쿄도 교향악단 초청 산토리 홀, 도쿄문화회관, 도쿄예술극장 등에서 협연을 하며 꾸준하게 실력을 인정받았다.

국윤중은 오스트리아 빈 폭스오페 주역가수로 오랜 시간 동안 활약하였고, 독일 레겐스부르크 극장, 하노버 시립 극장 주역가수, 대한민국 국립오페라단 주역가수로서 다양한 배역으로 무대에 서며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현재 수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중이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Bass Baritone
Samuel Yo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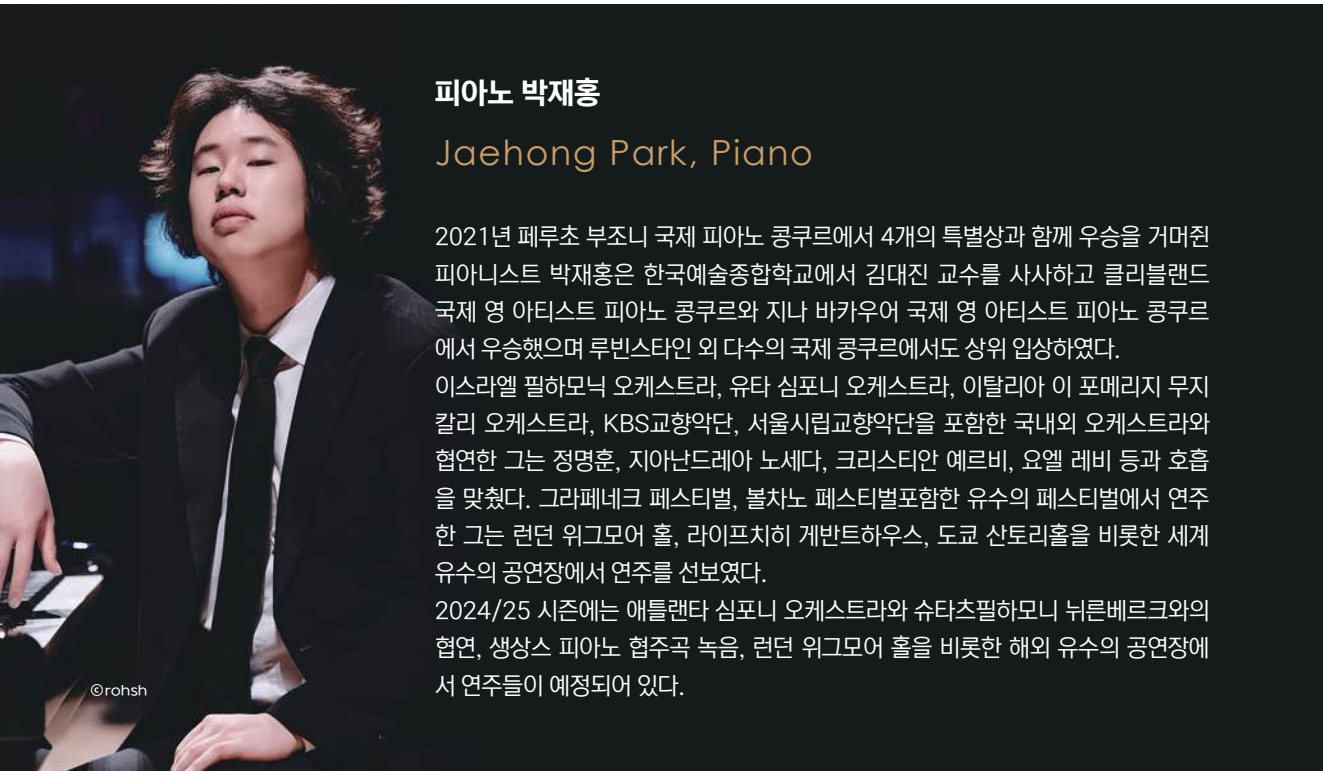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은 서울대학교에서 성악공부를 시작(이인영 교수 사사)하여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과 독일 쾰른 음악원에서 학업을 마쳤고, 여러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실력을 입증하였다.

2012년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개막작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주역으로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은 사이먼 래틀, 주빈 메타, 로린 마젤, 크리스티안 틸레만, 피에르 볼레즈, 세미온 비취코프, 야닝 네제 세강 등 거장 지휘자들과의 협연으로 런던 코벤트 가든, 베를린 도이치 오페, 드레스덴 젤퍼 오페, 밀라노 스칼라 극장, 파리 바스티유 극장, 마드리드 왕립극장, 바르셀로나 리세우 국립극장, 뮌헨 국립극장, 비엔나 오페라극장, 미국 리릭 오페라 시카고 등 세계 주요 극장에 출연하였다.

2022년 독일 주정부가 수여하는 독일어권 최고 영예인 궁정가수(Kammersänger) 칭호를 수여받은 사무엘 윤은 2014년에는 독일 쾰른시에서 수여하는 제3회 쾰른 오페라 가수상을 수상하였고, 제8회 대원음악상 연주자상, 2016년에는 해외무대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의 위상을 높인 것에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년에는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에서 이인선상을 수상하였다.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꾸준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사무엘 윤은 쾰른 오페라 극장 종신 성악가 솔리스트로 활동 중에 2022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임명되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4년 5월 그동안의 활동 과정을 담은 첫 솔로앨범 <From Darkness to Light (어둠을 지나 빛으로)>가 유니버설뮤직을 통해 발매되었다.



피아노 박재홍

Jaehong Park, Piano

2021년 페루초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4개의 특별상과 함께 우승을 거머쥔 피아니스트 박재홍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김대진 교수를 사사하고 클리블랜드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와 지나 바카우어 국제 영 아티스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루빈스타인 외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도 상위 입상하였다.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탈리아 이 포메리치 무지칼리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을 포함한 국내외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그는 정명훈,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크리스티안 예르비, 요엘 레비 등과 호흡을 맞췄다. 그라페네크 페스티벌, 볼차노 페스티벌포함한 유수의 페스티벌에서 연주한 그는 런던 위그모어 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도쿄 산토리홀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연주를 선보였다.

2024/25 시즌에는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슈타츠펠하모니 뉘른베르크와의 협연,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녹음, 런던 위그모어 홀을 비롯한 해외 유수의 공연장에서 연주들이 예정되어 있다.

©rohsh



소프라노 김선미

Sunmi Kim, Soprano

경북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하고 대구시립합창단 상임단원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고양시립합창단 상임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테너 박현민

Hyunmin Park, Tenor

명지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 미란다 페라로 아카데미와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국립오페라단 오페라아카데미를 수료하였고, 오페라 <라보엠>, <돈 조반니>, <리골레토> 등 주역으로 출연하였다. 현재 안양시립합창단 테너 수석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양시립합창단

Goyang Civic Choir

상임지휘자 김종현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인 고양시립합창단은 2003년에 창단하여 정기연주회,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매년 80여 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공연으로 고양 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합창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사람 중심, 시민 제일주의를 수행하며 다양한 형태의 합창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양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지휘자 김종현을 제8대 상임지휘자로 받아들이며 또 한 번의 비상을 추구하고 있다.

안양시립합창단

Anyang Civic Chorale

상임지휘자 이충한



안양시립합창단은 1987년 창단되어 130여 회의 정기·기획 공연, 그리고 유수의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고전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가곡, 성가, 팝송 등을 담은 9장의 음반을 제작하였다. 2014년 제10회 세계합창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무대에 올리는 등 수준 높은 예술성을 전 세계 합창계에 보여주며 세계 속에 한국 합창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립합창단

Incheon City Chorale

상임지휘자 윤의중



인천시립합창단은 1981년 창단되어 1995년 윤학원 전 예술감독과 함께 재창단 후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1997년 벨기에 IFCM(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을 시작으로 수십 회의 국제합창제와 미국 카네기홀 연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합창 페스티벌 초청 연주에 참여했다. 현재 제8대 예술감독인 윤의중 지휘자와 매년 70여 회의 정기·기획 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 크고 작은 연주를 통하여 인천의 시민들과 전국의 합창인들에게 다양하고 감동적인 합창음악을 선사하고 있으며, 300만 인천 시민이 합창으로 하나가 되는 '인천합창대축제'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의 합창 저변 확대와 발전에 힘쓰고 있다.

베토벤 / 합창 환상곡 c단조, 작품 80

L. v. Beethoven / Choral Fantasy in c minor, Op.80

작곡연도 1808년

초연 1808년 12월 22일, 오스트리아 빈

편성 합창, 소프라노 2, 알토, 테너 2, 베이스, 솔로 피아노,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2, 트럼펫 2,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19분

합창 환상곡은 1808년 늦가을 무렵 작곡, 12월 22일 치러진 대규모 아카데미(콘서트)에서 교향곡 5번과 6번, 피아노 협주곡 4번 등의 작품과 함께 초연되었다. 초연 당시 베토벤 자신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으며, 후반부에서 합창이 결합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초연 당시의 상황은 아찔했다. 야심 찬 계획에 반해 작품은 쉽게 완성되지 못했고, 서주 격인 도입부에서는 스케치만 있는 악보에 베토벤 자신이 피아노 독주를 거의 즉흥으로 연주해야 했으며, 리허설의 부족으로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도중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합창 환상곡은 형식적으로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과 대규모 합창 음악을 결합한 독특한 작품이다. 구조상으로는 아다지오 파트와 피날레 파트로 나누며, 피아노 독주, 관현악, 그리고 합창을 포함한 다채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다. 서주는 즉흥적인 느낌을 주는 피아노 독주로 시작되며, 이후 관현악과 합창이 결합된다. 이 서주는 작품 전체의 주제와 음향적인 분위기를 세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후 피아노가 주요한 선율을 이끌어가며 관현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작품 후반부에서는 합창이 도입된다. 합창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방식으로 관현악, 피아노와 함께 큰 음악적 절정을 이루며 청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 합창 부분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후속 작품인 교향곡 9번에 대한 시놉시스를 제공하게 된다.

베토벤은 합창 환상곡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음악적 혁신을 시도하였다. 첫째, 피아노 독주와 관현악의 상호작용은 그 이전의 음악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피아노가 단순히 협주곡에서의 독주자 역할을 넘어, 오케스트라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합창의 도입은 단순한 음향적 결합을 넘어서서, 음악적 표현에 있어 중요한 혁신을 이루었다. 베토벤은 교향곡과 합창을 결합한 방식으로 음악의 표현 범위를 확장했으며, 이는 그의 교향곡 9번에서의 '환희의 송가'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제목에서 '환상곡'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 작품이 엄격한 소나타 형식을 따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베토벤은 자유롭고, 즉흥적이며, 감정적으로 풍부한 전개를 추구했다. 시인 크리스토프 쿠프너의 '우리들 생의 조화로운 선율은'에 기초한 가사는 '사랑과 힘이 하나가 될 때, 인류는 신의 은총을 입으리라'라는 궁극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합창 환상곡은 많은 면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9번과 유사한 점이 있다. 두 작품 모두 합창과 관현악을 결합한 대규모 형식을 특징으로 하며, 특히 교향곡 9번의 '환희의 송가'는 합창 환상곡에서의 합창 부분과 음악적 맥락을 공유한다. 교향곡 9번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메시지, 즉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아이디어는 합창 환상곡에서도 그 씨앗을 찾을 수 있다. 합창 환상곡에서의 합창은 단순히 음악적 장식물이 아니라 음악적 메시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합창 환상곡은 교향곡 9번의 개념적 근본을 미리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글 | 김은중 (음악 평론가)

베토벤 합창 환상곡 가사

Choral Fantasy Lyrics

Schmeichelnd hold und lieblich klingen
unseres Lebens Harmonien,
und dem Schönheitssinn entschwingen
Blumen sich, die ewig blühn.
Fried und Freude gleiten freundlich
wie der Wellen Wechselspiel.
Was sich drängte rau und feindlich,
ordnet sich zu Hochgefühl.

Wenn der Töne Zauber walten
und des Wortes Weihe spricht,
muss sich Herrliches gestalten,
Nacht und Stürme werden Licht.
Äuss're Ruhe, inn're Wonne
herrschen für den Glücklichen.
Doch der Künste Frühlingssonne
lässt aus beiden Licht entstehn.

Großes, das ins Herz gedrunge,
blüht dann neu und schön empor.
Hat ein Geist sich aufgeschwungen,
hält ihm stets ein Geisterchor.
Nehmt denn hin, ihr schönen Seelen,
froh die Gaben schöner Kunst
Wenn sich Lieb und Kraft vermählen,
lohnt den Menschen Göttergunst.

우리들 생의 조화로운 선율은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속삭이듯 울리고,
영원히 피어나는 봄꽃은
미감(美感)으로부터 싹튼다.
평화와 기쁨은 굽이치는 물결처럼
유쾌하게 흐르고,
거칠고 적의에 찬 위세는
영웅적 기개로 바뀌었다.

신비스러운 소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예술적인 영감이 고취될 때
영광스러운 반드시 도래하여
어둠과 혼돈은 빛으로 변한다.
행복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외부의 고요와 내부의 기쁨이다.
그러나 봄날 태양과도 같은 예술은
고요와 기쁨이 발하는 빛으로 더욱 찬란하다.

마음에 채워진 위대함이
새롭고 사랑스럽게 꽃핀다.
영혼이 저 높이 웅지의 나래를 펼 때
영혼의 합창은 더 멀리 울려 퍼지리라.
자, 아름다운 영혼이여
아름다운 예술의 선율을 기쁘게 받으라.
사랑과 힘이 하나가 될 때,
인류는 신의 은총을 입으리라.

Choral Fantasy in c minor, Op.80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d단조, 작품125 '합창'

L. v. Beethoven /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Choral'

작곡연도 1824년
초연 1824년 5월 7일, 오스트리아 빈
편성 합창,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플루트 2, 피콜로,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팀파니,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현5부
연주시간 약 65분

베토벤은 1793년 고향인 본에 있을 때 이 곡을 구상해 왔는데, 1822년 10월 10일에 런던 필하모니협회(1813년 창립)에서 교향곡의 작곡 위촉장을 받고 합창 교향곡 구상을 즉시 실현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1824년 초에 완성되었다. 작곡 의도를 품은 때로부터 완성까지 실로 30여년에 걸친 것이다. 1824년 5월 7일 빈의 케른트네르 극장에서 베토벤 자신의 감독 아래 움라우프의 지휘로 '서곡 헌당식', '장엄 미사'와 함께 초연되었다.

1악장 : d단조 2/2박자 소나타 형식. 폭풍과도 같았던 삶을 회고하고 있는 것일까, 태초의 혼돈을 표현했던 것일까, 아니면 암흑 속에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일까. 응축된 에너지는 이내 운명과 맞서 싸우던 지난날의 투지로 실체를 드러낸다. 조성조차 모호한 A음과 E음의 실체는 3음이 빠진 d단조의 딸림화음 구성체였다. 청각상실의 저주에도 굴하지 않고 인생을 정면 돌파한 베토벤의 모습이 드러나고 점점 더 격렬한 소용돌이가 몰아친다.

2악장 : d단조 3/4박자 스케르초. 1악장의 격동과 투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농담으로 뒤덮인 스케르초가 분위기를 갑자기 휘저어버린다. 잡으려 해도 도저히 잡히지 않는 소용돌이 속에 우스꽝스럽게 흔들린다. 8도 간격의 팀파니가 쫓기고 쫓는 이 악장의 매력을 더한다. 이 스케르초 악장에 부여되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다지오와 스케르초 악장간의 재배치다. 통상적 교향곡 구조에서 스케르초는 세 번째 악장에 위치하기 마련이다. 베토벤은 다른 작품에서 여러 실험적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었지만 교향곡에서는 이번이 첫 시도다. 이 선례를 바탕으로 브루크너와 말러 등 후대 작곡가들은 더 넓은 상상의 캔버스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전개부를 발전시킴으로 스케르초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 지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3악장 : B플랫장조 4/4박자. '고통에 가득 찼던 삶, 그래도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라고 읊조리는 악장이다. 바람과 같은 현악기의 선율은 따스한 바람으로 뺨을 스치고, 묵직한 더블 베이스는 오래된 아름드리나무처럼 넓게 뻗은 가지로 그늘을 만들어주며, 바순과 클라리넷, 플루트는 호수에 비치는 햇살 같다.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Choral'

4악장 : d단조, 3/4박자. '환희의 송가'를 시작하기 전 '많은 투쟁을 체험해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듯 오케스트라의 급격하고 기괴한 소음으로 시작된다. 이 소음이 저음 현악기의 레치타티보에 의해 여러 번 중단되다가 제1악장의 첫머리가 재현된다. 다시 레치타티보가 있고 제2악장의 부분이, 또 레치타티보를 연주한 다음 제3악장의 선율이 회상되고는 합창의 모티브가 목관에서 나타나고 나서 저음 현악기에서 환희의 선율이 고조되어 간다. 베이스에서 테너로, 성악가들은 '환희의 송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고뇌를 이겨내고 환희의 대열로 가자고 말하는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 베토벤은 '더 즐겁고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자'고 권한다. 교향곡의 끝부분에서는 밝은 분위기와 경쾌한 화음이 살아나더니 마침내 '환희에서의 감격'을 알리고는 웅장한 울림으로 대장정의 끝세로줄을 새긴다.

2006년 본향의 작품인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1번>으로 KBS교향악단과 설레는 첫 만남을 시작으로, 2022년 악단의 제9대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피에타리 잉키넨과 KBS교향악단의 여정은 이로써 마무리된다. 취임 첫 해 시벨리우스 집중 탐구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짜 핀란드'를 알게 해줬고, 이를 통해 악단에 내재된 잠재력을 면밀히 살피며 레퍼토리 확장에 나선 두 번째 해를 지나,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한 마지막 해의 임기까지 잉키넨이 다져 놓은 KBS교향악단의 지난 3년은 깊음과 넓음, 도전과 확장의 연속이었다. 선대 감독이 그래왔듯, 잉키넨 역시 KBS교향악단과의 연을 이어 나가며, 악단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위기의 때에 언제나 달려와 한국의 청중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글 | 김은중 (음악 평론가)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가사

Symphony No.9 Lyrics

O Freunde,
nicht diese Töne!
Sondern laßt uns angenehmere anstimmen,
und freudenvollere!
Freude! (Freude!)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Tochter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Wem der große Wurf gelungen,
eines Freundes Freund zu sein,
Wer ein holdes Weib errungen,
mische seinen Jubel ein!
Ja, wer auch nur eine Seele
sein nennt auf dem Erdenrund!
Und wer's nie gekonnt, der stehle
weinend sich aus diesem Bund!

Freude trinken alle Wesen
an den Brüsten der Natur,
Alle Guten, alle Bösen
folgen ihrer Rosenspur.
Küsse gab sie uns und Reben,
einen Freund, geprüft im Tod;
Wollust ward dem Wurm gegeben,
und der Cherub steht vor Gott.

오, 벗들이여,
이 선율이 아니오!
더 즐겁고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지 않겠는가!
환희여! (환희여!)
환희여,
신의 아름다운 불꽃이여,
낙원의 딸이여,
우리 모두 그 불에 취해
하늘에 있는 당신의 성소로 들어가나이다!
시류가 전적으로 갈라놓았던 것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으로 다시 결합시키니,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르는 곳에서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진실된 우정을 얻는
위대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여,
여성의 따뜻한 사랑을 얻은 자여,
다 함께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이 땅에 영혼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함께 부르자!
그리고 그조차 가지지 못한 자는
눈물 흘리며 조용히 떠나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연의 품에서 환희를 마시고
모든 선인이나, 악인이나
환희 속에 장미 발자취를 따른다.
환희는 우리에게 입맞춤과 포도주, 그리고
죽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친구를 주며,
쾌락은 벌레의 몫이 되고,
비로소 천사는 신 앞에 서게 된다.

Froh, froh, wie seine Sonnen fliegendurch
des Himmels prächt'gen Plan,
Laufet, Brüder, eure Bahn,
freudig, wie ein Held zum Siegen!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Tochter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Seid umschlungen, Millionen!
Diesen Kuß der ganzen Welt!
Brüder, über'm Sternenzelt
muß ein lieber Vater wohnen.

Ihr stürzt nieder, Millionen?
Ahnest du den Schöpfer, Welt?
Such' ihn über'm Sternenzelt!
Über Sternen muß er wohnen.
Brüder, über'm Sternenzelt
muß ein lieber Vater wohnen.

Seid umschlungen, Millionen!
Diesen Kuß der ganzen Welt!
Brüder, über'm Sternenzelt
muß ein lieber Vater wohnen.
Seid umschlungen!
Diesen Kuß der ganzen Welt!

기뻐하라, 태양이 하늘의
장엄한 계획에 따라 날아가듯
형제여, 영웅이 승리를 갈구하듯
환희의 길로 기쁘게 달려가라!
환희여,
신의 아름다운 불꽃이여,
낙원의 딸이여,
우리 모두 그 불에 취해
하늘에 있는 당신의 성소로 들어가나이다!
시류가 전적으로 갈라놓았던 것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으로 다시 결합시키니,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르는 곳에서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안겨라, 만민이여!
온 세상에 이 입맞춤을 주노라!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계신다.

세상의 만민이여, 엎드려 예를 갖추는가?
너희는 창조주가 계심을 느끼는가?
별 너머에 계신 그분을 찾으라!
별 위에 그분은 분명히 계신다.
형제여, 별 하늘 저 너머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계신다.

안겨라, 만민이여!
온 세상에 이 입맞춤을 주노라!
형제여, 별 하늘 저 너머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계신다.
안겨라!
온 세상에 이 입맞춤을 주노라!

2024년, KBS교향악단과 함께한 클래식의 여정

2024년 한 해, 나는 KBS교향악단의 공연과 음악을 통해 클래식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 그들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경험을 넘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감동을 선사했다.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를 듣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연 소식을 접하면서, 나는 매년 그들의 음악적 여정을 따라가게 되었다.

KBS교향악단의 공연과 음악적 체험

KBS교향악단의 공연은 항상 기대 이상의 경험을 안겨준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2024년 9월, 서울에서 연주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5번>. 그 날의 공연은 무척 감동적이었다. 격렬한 리듬과 섬세한 선율이 교차하며, 오케스트라 전체가 하나로 뭉쳐 만든 힘찬 에너지는 마치 내 마음속의 갈등과 희망이 하나로 융합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단지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나열이 아니다. 그들은 작품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작곡가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한다.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5번>은 묵직한 현악기의 떨림으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스탈린 치하의 암울한 사회적 분위기와 쇼스타코비치 개인의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연주였다. 나 뿐만 아니라 그 날 함께한 관객들은 숨죽이며 교향악단 연주에 귀를 기울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교향곡의 비극적 서사가 점점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현악기의 섬세한 터치가 쇼스타코비치가 그 당시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었는지 연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는 압도적이었다.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연주를 듣는 그 시간만큼은 암울했던 사회적 분위기, 그 긴장과 불안, 그리고 모호한 승리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표현되며 온몸을 전율케 했다.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난 KBS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의 음악을 직접 공연장에서 듣는 것도 좋지만,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접하는 그들의 음악도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특히 KBS 클래식FM의 '실황특집 중계방송'은 내가 하루의 일정을 마친 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KBS교향악단의 생생한 연주를 자주 들을 수 있는데, 방송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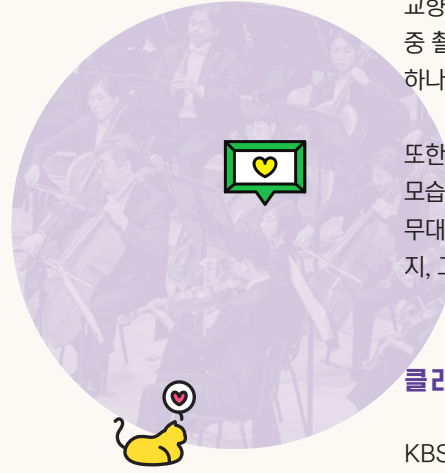
유튜브에서는 KBS교향악단의 과거 공연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음질의 영상과 오디오로 재현되는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클래식의 섬세함을 그대로 전달하며, 특히 대형 작품을 다룬 영상에서는 그들의 진지하고 정교한 연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자주 찾아보는 영상은 그들의 특별한 협연 무대다. 세계적인 지휘자와 협연한 공연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음악적 정수를 맛볼 수 있다.

2024 X KBS교향악단 에세이 공모전 당선작



인스타그램으로 만나는 KBS교향악단의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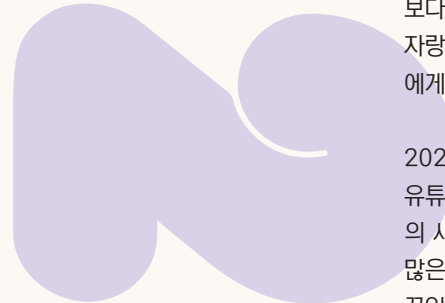
2024년 동안 KBS교향악단의 최신 소식을 접하는 데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 공연 일정, 리허설 현장, 지휘자와 연주자들의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기 때문에, 공연 전후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빠르게 느낄 수 있었다. KBS교향악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단순히 공연 일정만을 알리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적 세계를 좀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었다. 특히 '#KBS교향악단' 해시태그를 따라가며 공연 관람 후 다른 관객들과 소감을 나누거나, 공연 중 촬영된 멋진 사진들을 감상하는 것은 내가 클래식 음악을 더욱 즐기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KBS교향악단의 연주자들과의 짧은 인터뷰 영상이나, 연습 모습 등을 볼 수 있어서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은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그들의 헌신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나의 생각

KBS교향악단을 통해 클래식 음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클래식은 단순히 고전적인 형식이나 이론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시대와 공간을 넘나들며 감동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예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KBS교향악단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전달하는 집단이다. 그들의 연주는 단지 기술적인 완성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을 통해 인간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를 고민하는 그들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



2024년은 내가 KBS교향악단과 함께한 특별한 한 해였다. 공연장에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들의 음악을 접하면서, 나는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고, 더 깊은 감동을 경험했다. 그들의 음악은 나에게 삶의 많은 부분에서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KBS교향악단은 앞으로도 나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클래식 음악의 진정성과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다. 2024년의 음악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글 | 이상욱





Thank you Maestro, Music Director Pietari Inkinen

2022년부터 3년간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며 예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린 피에타리 잉키넨 음악감독. 그의 지휘 아래 KBS교향악단은 안정된 호흡과 풍부한 소리를 선보이며 새로운 도약을 선보였다. 특히 핀란드의 지휘 교육 노하우를 활용한 청소년 지휘 마스터클래스는 국내 음악계에 큰 울림을 남기기도 했다.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지만, 그의 흔적은 오케스트라와 관객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Q. 2022년부터 음악감독직을 맡았는데, 코로나 기간이라 쉽지 않았을 거라 짐작됩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기연주회가 예정대로,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Q. 많은 정기연주회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나 협연자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특정 연주회나 협연자를 뽑기에는 하이라이트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 관객들께 저에게 소중한 여러 프로그램들, 특히 낭만주의 레퍼토리를 선보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뛰어난 단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Q. 교향악단을 떠나며 함께했던 악단에 한마디 해주신다면?

A. 저의 음악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단원들이 보여준 두려움 없는 노력, 그리고 함께 이룬 성과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KBS교향악단은 지휘자가 원하는대로 연주와 사운드를 지휘자의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향악단에 특히 매료되었지요. 대체로, 우리 모두가 이룬 성과에 대해 굉장히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Q. KBS교향악단을 사랑해주신 한국 관객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한국 관객들은 항상 열정적이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나라에선 비슷한 경험을 거의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레퍼토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객석에 젊은 관객들이 많은 것도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Q. 피에타리 잉키넨 음악감독에게 삼계탕이란?

A. 삼계탕은 저에게 위안을 주는 음식입니다. 유럽에서 막 도착했을 때 먹기에 딱 좋은 최고의 음식이에요. 가볍고, 소화하기도 쉽고, 매우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맛있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입니다.

Q.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A. 유럽, 미국, 아시아,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연주를 이어나갈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오케스트라를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오랜 세월 연주를 했지만, 아직도 지휘하지 못한 오케스트라가 있네요!

특히 앞으로 몇 달 동안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도이치 라디오 필하모니(Deutsche Radio Philharmonie)와 함께 바덴바덴 축제극장(Festpielhaus Baden-Baden)과 알테 오페라 프랑크푸르트(Alte Oper Frankfurt)를 순회하는 콘서트 투어입니다.

그리고선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으로 돌아와,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그프리트'와 '신들의 황혼'의 무대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2025

SUBSCRIPTION

제810회

1월 24일(금) 20시
롯데콘서트홀

L 패키지



지휘 엘리아후 인발
첼로 한재민

모차르트 교향곡 제25번 g단조, K.183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제1번 Eb 장조, 작품 107
버르토크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BB 123

R 110,000* S 90,000* A 60,000* B 30,000* C 10,000*

제811회

2월 21일(금)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 패키지



지휘 정명훈
소프라노 황수미
메조소프라노 이단비
합창 고양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말러 교향곡 제2번 c단조 '부활'

R 120,000* S 100,000* A 70,000* B 30,000* C 10,000*

제812회

3월 21일(금)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 패키지



지휘 요엘 레비
피아노 손민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d단조, 작품 15
R.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작품 40, TrV 190

R 110,000* S 90,000* A 60,000* B 30,000* C 10,000*

제813회

5월 2일(금)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 패키지



지휘 마하엘 잔데를링
피아노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

시벨리우스 핀란드야, 작품 26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16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작품 36

R 110,000* S 90,000* A 60,000* B 30,000* C 10,000*

제814회

5월 22일(목)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 패키지



지휘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
바이올린 레일라 요세포비치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 작품 9, H.95
스트라빈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K.053
R. 슈트라우스 돈 후안, 작품 20, TrV 156
R.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모음곡, 작품 59, TrV 227d

R 100,000* S 80,000* A 50,000* B 30,000* C 10,000*

제815회

6월 12일(목) 20시
롯데콘서트홀

L 패키지



지휘 정명훈
피아노 선우예권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C장조, 작품 15
브루크너 교향곡 제6번 A장조, WAB 106

R 120,000* S 100,000* A 70,000* B 30,000* C 10,000*

CONCERTS

정기연주회

제816회

7월 18일(금) 20시
롯데콘서트홀

L 패키지



지휘 마르쿠스 슈텐츠
피아노 드미트리 시쉬킨

라벨 볼레로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장조, 작품 26
신베르크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작품 5

R 110,000* S 90,000* A 60,000* B 30,000* C 10,000*

제817회

8월 29일(금)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 패키지



지휘 정명훈
피아노 후지타 마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5번 C장조, K.503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 작품 14, H.48

R 120,000* S 100,000* A 70,000* B 30,000* C 10,000*

제818회

9월 25일(목)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 패키지



지휘 켈마 뉴
색소폰 제스 킬럼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
존 애덤스 색소폰 협주곡 (한국 초연)
코플런드 교향곡 제3번

R 100,000* S 80,000* A 50,000* B 30,000* C 10,000*

제819회

10월 17일(금)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 패키지



지휘 피터 운지안
바이올린 랜들 구스비

조앤 타워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모음곡 (한국 초연)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3번 a단조, 작품 44

R 100,000* S 80,000* A 50,000* B 30,000* C 10,000*

제820회

11월 21일(금) 20시
롯데콘서트홀

L 패키지



지휘 레너드 슬래트킨
피아노 2025 제19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신디 맥티 순환 (한국 초연)
쇼팽 피아노 협주곡 (추후 공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1번 g단조, 작품 103 '1905년'

R 120,000* S 100,000* A 70,000* B 30,000* C 10,000*

제821회

12월 27일(토) 17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 패키지



지휘 정명훈
협연진 추후 공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R 150,000* S 120,000* A 80,000* B 30,000* C 10,000*

2025 PROJECT CONCERTS



라입업 영문 In English

기획연주회

2025 SEASON PREVIEW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음악의 향연

A Panorama of Musical Journey

2025년 KBS교향악단의 정기 및 기획 연주회 프로그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폭넓은 스펙트럼의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모차르트, 베토벤에서부터 브람스와 브루크너 및 말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이르기까지 독일-오스트리아의 대표적 레퍼토리는 물론이고, 미국 근·현대 관현악의 걸작들과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라벨 등 20세기의 문제작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2025년 프로그램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귀환'이다. 지난 1998년 KBS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를 지냈던 그는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연주회와 특별 기획공연 등을 통해 KBS교향악단과의 예술적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2025년에는 총 네 번의 정기연주회와 세 번의 기획공연을 이끌며 자신만의 확고한 예술 세계를 보다 폭넓게 펼쳐보일 예정이다. 2월 말리의 <교향곡 제2번 '부활'>을 시작으로, 3월에는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을 지휘한다.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특별히 기획된 브람스 교향곡 전곡 시리즈, 6월의 브루크너 <교향곡 제6번>, 8월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과 12월 한해의 대미를 장식할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까지. 중후장대한 대곡과 명작 위주로 구성된 지휘자 정명훈의 2025년 프로그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 음악 애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재 세계 음악계를 선도하고 있는 월드 클래스 연주자들로 구성된 협연자 라인업도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첼리스트 한재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손민수 등 K-클래식 열풍을 불러온 대한민국의 음악가들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전설'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 눈부신 음악적 역량을 자랑하는 레일라 요세 포비치를 비롯해 드미트리 시쉬킨, 후지타 마오, 랜들 구스비 등도 KBS교향악단과의 협연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11월에는 202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와의 협연 무대를 미리 예고하고 있어 벌써부터 비상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KBS교향악단의 2025년 연주회에는 눈에 띄는 특별하고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는 연주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른바 비르투오조 교향시이며, 그의 <돈 후안>, <장미의 기사 모음곡> 등 하드코어한 탐미주의 명곡들도 함께 연주 곡목에 포함되어 있다. 에런 코플랜드의 <교향곡 제3번>과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11번> 등은 자주 만나기 힘든 현대의 문제작이며, 쇤베르크의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또한 교향악단의 음악적 역량을 백일하에 드러낼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가장 신비로운 걸작이다. 2025년도 KBS교향악단의 프로그램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를 빛낸 명곡들에서부터, 근·현대 프랑스와 미국, 영국 등 20세기 음악까지를 총망라한 충실하고도 감도 높은 레퍼토리로 가득 차 있다.

글 | 황지원 (음악 평론가)



롯데와 함께하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합동연주회 KBS교향악단 X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3월 3일(월) 19시 30분 롯데콘서트홀

지휘 정명훈 모차르트
피아노 선우예권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10번, Eb 장조, K.365
이가라시 카오루코 말러 교향곡 제1번 D장조 '거인'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150,000* Ⓢ 120,000* ⓐ 80,000* ⓑ 30,000* ⓒ 10,000*



마스터즈 시리즈 I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브람스 I, II

브람스패키지

3월 14일(금) 20시 롯데콘서트홀

지휘 정명훈 브람스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 68
브람스 교향곡 제2번 D장조, 작품 73

Ⓡ 120,000* Ⓢ 100,000* ⓐ 70,000* ⓑ 30,000* ⓒ 10,000*



마스터즈 시리즈 II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브람스 III, IV

브람스패키지

6월 5일(목) 20시 롯데콘서트홀

지휘 정명훈 브람스 교향곡 제3번 F장조, 작품 90
브람스 교향곡 제4번 e단조, 작품 98

Ⓡ 120,000* Ⓢ 100,000* ⓐ 70,000* ⓑ 30,000* ⓒ 10,000*

KBS S.O. 810th

Conductor
Elijah Inbal

지휘 엘리야후 인발

Cello
Jaemin Han

첼로 한재민

2025.
1.24. Fri
20:00 롯데콘서트홀

모차르트 / 교향곡 제25번 *안단테*, 작품 183
W.A. Mozart / Symphony No.25 in g minor, K.183
소스타코비치 / 첼로 협주곡 제1번 *E♭* 장조, 작품 107
D.Shiostakovich / Cello Concerto No.1 in E♭ Major, Op. 107
베르토크 /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BB123
B.Bartok / Concerto for Orchestra, BB123



WHERE THE WIND STAYS



바람이 머무는 곳

ARTISTS

지휘 피에타리 잉키넨
Pietari Inkinen, Conductor

바이올린 요제프 슈파체크
Josef Spaček, Violin

PROGRAM

드보르자크 바이올린 협주곡
A. Dvořák Violin Concerto

U+STAGE U+tv 및 U+모바일tv VOD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11월~)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 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2022년 제9대 음악 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 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참가해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창록 피에타리 잉키넨	객원수석 약장	Liviu Prunaru* (전) 콘서트헤바우 약장
단원 제1바이올린	악장* 부악장** 수석+ 부수석**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김나현**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플루트 클라리넷 호른 트롬본	안명주+ 조성호+ 이석준+ 주인혜+
제2바이올린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이유진	사무곡 사무곡장	신승원 사무곡장
비올라	진덕+ 한넬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김우진+ 윤여훈**	공연기획팀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나희 사원 허효정 (공연지원파트)
첼로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래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더블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객민재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트롬본 베이스트롬본 튜바 팀파니 타악기 하프	이지민+ 김종아** 조성호 이승훈** 박한 양수현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현 윤지연 정다운 Norito Usui 이원석+ Jason Yoder+ 장세나 Matthew Ernster 김서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바순 호른 트럼펫	인턴십 2기 김수연 박예진 이예령 이태형 김유림 심수연 최찬열 민예원 이영훈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후원금액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 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 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주차권 증정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동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 및 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공연장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 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재)KBS교향악단 전화 | 02-6099-7407 /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후원회원 온라인 가입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임이사	한창록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KBS교향악단 후원회

Concerto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영애 배우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Prelude	박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오지연 변호사 유수연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스 대표 윤중호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욱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KDB산업은행		
Nocturne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항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3년 당신을 지지해온
셀리 포스처피딕
Life ON Sealy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  www.kbsymphony.org
-  [kbsymphonyorchestra](#)
-  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
-  facebook.com/kbsymphony
-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oforever')